

이덕일의 '역사의 창'



강대국의 조건

동서 냉전이 채 끝나지 않은 1987년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을 출간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하면서 서양사 사이의 균형이 강대국의 지속 가능한 척도라고 보았다. 경제가 커질수록 이를 지켜내기 위한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군사력의 지나친 확대는 재정 악화를 불러와 강대국의 쇠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군사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제가 몰락하면서 강대국의 패권을 몰락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맞서 경제 능력 이상의 군비 경쟁을 벌이던 소련이 1991년 몰락한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케네디는 또 미국의 패권은 끝났으며 일본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지만 일본이 쇠퇴하면서 그런 전망은 무색해졌다.

필자가 '강대국의 흥망'에 주목한 것은 이런 분석 외에도 강대국의 조건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 여부는 상관 없다고 봤다는 점이다. 일본계 미국인 3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언'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패배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에 따라 앞으로 세계는 큰 전쟁이나 대립 없이 평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이슬람 사이의 종교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봐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낙관적 전망은 오류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강대국의 조건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 여부는 상관없다는 폴 케네디의 말은 한때 전 유럽을 거의 지배했던 나치 독일과 현재의 중국의 중국을 보더라도 실감난다. 중국은 1989년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후 경제는 자유를 허용하되 정치는 더욱 억압하는 반(反)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갔음에도 국력은 더욱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제 패권주의의 속내를 숨기지 않는 시발은 2006년 11월 중국 중앙방송의 경제채널(CCTV-2)에서 12부작으로 방영한 '대국굴기(大國崛起)'에서 뚜렷했다. 유럽 각국 및 일본과 미국의 부흥과 몰락에 대해 탐구한 이 역사 다큐멘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21세기 '사회주의 중국'의 패권이다. 마지막 12부가 '대도행사(大道行)'라는 제목의 '21세기 대국의 길'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은 어떤가? 미국의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2022년 12월 31일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발표했다.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이었다. 우리로서는 어쩌면 뜻밖에도 6위가 대한민국이었다.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이 8위로 뒤처지고 8위였던 한국이 6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상 변화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 강대국은 자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독립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여야 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이 지배하고 있고,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의 국가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광복 후 한국은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정치권은 이 토대 위에서 사회 통합과 남북통일의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과거의 담론에 머물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해서 싸움을 붙이는 차기 총선 소책(小策)에 목숨 걸고 있다. 서론에서는 늘 일제 식민사관을 비판하지만 본문에 들어가면 이미 유훈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역사학자들이 여야 정치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두 나라가 모두 한국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신주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내 입안에도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



유재식 중추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 일어나는 병원(중환자실 등)에서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슈퍼 박테리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항생제와 접촉하는 세균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균들은 속칭 이스케이프(ESKAPE) 균이라고 불린다. ESKAPE라는 말은 언뜻 보면 ESCAPE의 철자를 잘못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의도에 맞게 명명된 것이다. 항생제는 다양한 기전으로 세균을 파괴하는데, 이 이스케이프 균은 교묘하게 이런 항생제의 효과를 피하고 탈출한다(=ESCAPE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ESKAPE 균은 각각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아세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엔테로박테리(Enterobacter spp) 등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이다.

최근 모 병원 신생아실에서 영유아 사망 소식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망 원인의 주범이 바로 이스케이프 균이었다. 이 균들은 병원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나 면역체계가 무너진 환자의 수술 부위에 감염돼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중증의 전신 질환을 가진 노령의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치과에서 관혈적 시술을 받고 난 후 이런 이스케이프 균에 감염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부위가 잘 낫지

않게 된다. 이때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시기를 놓치면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직까지 치과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에 대한 심각성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본 병원에서도 이스케이프 균 감염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감염증을 막기 위해서 치과 종사자는 관혈적 시술 시 멸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환자를 볼 때마다 99.9% 세균 박멸이 가능한 손 씻기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치과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즉시 내원하는 것도 늘 일어나는 감염증에 대한 합병증을 막는 방법일 것이다.

손 씻기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며, 다양한 것과 접촉했던 손을 입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치과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성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처방한 용법·용량·기간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세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소한 원칙을 지켜가며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홍보 등을 통해 이런 감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리고, 감염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지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한다.

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의 과제



김해중 농협 무안군지부장

명적이다. 농사는 하늘이 짓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내륙에 과거 30년(1912-1941년)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 동안 연평균 1.6도가 상승하였고 기온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로 인한 농업의 변화는 명확하다. 국내 주요 작물 재배 적지가 변화되고 있다. 재배 적지란 작물별 최적의 기후와 토양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의미한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각 작물의 재배 적지 역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보리 등 맥류 재배 지역이 빠르게 북상 중이며 사과는 이미 강원도 철원까지 진출했고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경북 경산의 포도는 강원도 영월까지 북상했다. 이렇듯 재배 적지가 변하는 건 장기적 수급 구조가 바뀐다는 걸 뜻한다.

또 다른 변화는 생육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겨울 배추를 예로 들어보자면 겨울 배추의 정식은 9월 상순 전후에 이루어져서 보통 70일간 생육기를 거쳐 출하한다. 겨울 배추 생육 적온은 15-20도 정도로 선선한 환경 조건이 필요하나 지난 2021년은 생육기인 10월 중순까지 온도가 27-30도까지 올라가면서 배추가 자라기 힘든 조건이 됐다. 병충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건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식을 늦추면 숙기가 늦어 출하기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배추는 제때 심어서 적절한 생육 기간을 거쳐 제때 수확하고 판매를 해야 수요와 공급이 맞고,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된다. 지난해 고령지 흉수로 인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앞에 '급'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던 기억이 난다. 원인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비단 배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별 농업 대책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업인은 비료와 화석 에너지 사용 등 농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이산화탄소 등)를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저항성이 높은 품종 개발과 보급, 영농법 도입 등 농작물 적응 대책 수립과 더불어 기상의 급격한 변화 예측 정보를 수집·전파하여 농업인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협은 농작물의 수확이나 출하 시기가 빨리지는 추세에 대응하는 출하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농협 등 다양한 주체가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백년대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혈세로 산 신앙파크호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광주시가 2년여 전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으로 사들인 옛 신앙파크호텔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여태껏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가 신앙파크호텔을 매입한 시점은 민선 7기 때인 2020년 10월이다. 폐업한 호텔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호화 주택단지 건립을 추진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혈세 369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무등산 장원봉 자락에 자리한 신앙파크호텔은 1980-9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숲속의 호텔'이란 이름에 걸맞게 광주를 방문하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단골 투숙처였고 광주시민들에게 결혼 및 연회 장소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도심권에 5성급 호텔과 호화 웨딩컨벤션이 등장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신앙파크호텔이 국립공원 무등산을 상징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해 거액의 혈세를 들여 매입했다. 일명 '무등산 공유화 사업'의 일환인데 광주

시는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해 16차례 세금으로 사들인 옛 신앙파크호텔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여태껏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가 신앙파크호텔을 매입한 시점은 민선 7기 때인 2020년 10월이다. 폐업한 호텔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호화 주택단지 건립을 추진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혈세 369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한데 민선 8기 들어 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은 백지화됐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이후 부지 매입은 존중하지만 재정 부담 최소화하고 시민 열린 공간 조성 등 3대 원칙을 강조하며 호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7개월 동안 광주시가 한 것은 민관·정 회의를 딱 한 번 개최한 것 밖에 없다. 아직까지 주관 부서조차 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신앙파크호텔은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연간 이자 부담만 18억 원이 넘어 재정 부담 최소화라는 재검토 명분도 빛을 잃고 있다.

이전 시장이 결정할 행정 행위를 뒤집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혈세 낭비를 막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해제...마침내 날아오르는 흑산공항

전남도와 신안 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흑산공항 건설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돼 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돼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흑산공항이 들어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를 국립공원에 대해 편입한 것이다. 이로써 20년 이상 표류했던 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안군은 지난 2000년과 2010년 한국 항공대회와 한국항공정책연구소에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나 철새 도래지 보호를 이유로 세 차례나 환

경부 심의가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항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전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2026년까지 1833억 원을 들여 길이 1200m의 활주도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92km 떨어져 쾌속선으로 두 시간 넘게 걸리는 편다. 걸핏하면 기상 악화로 결항되는 경우가 많아 섬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공항이 완공되면 50인승 소형 항공기로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를 한 시간 안에 연결, 주민의 응급 상황 대처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7년 이후 중저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천혜의 비경으로 꼽히는 흑산도의 자연경관과 철새 이동 경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는 저출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에서 12위로 예측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2050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2050년 세계 4위,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은 2075년 각각 세계 5위와 6위로 올라선다. 인구 대국이 곧 경제 대국이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2070년까지 15위권 내에서 '선방'한다. 2050

선진국 대열

하지 못한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년

년과 2075년 미국은 2·3위, 독일은 5·9위, 일본은 6·12위로 각각 예상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짧은 기간 반짝 전성기를 누리고 경제 대국 명단에서 사라진다. 그 이유를 2000년대 들어 심각해진 저출산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이는 매우 복합적이며, 오래 전부터 그 전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70여 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낸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기운을 상실하는 원인은 '압축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짧은 시간에 목표를 이뤄내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